



# 날으는 홍범도장군

제18호  
2018. 9. 10  
가을

사단법인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신교동) 발행인: 우원식 편집인: 홍성덕  
TEL: 02)734-8851 ~ 2 FAX: 02)722-0251 http://cafe.daum.net/hongbumdo



##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임시총회, 국회에서 개최 신임 이사장으로 우원식 의원 선출, 이종찬 명예이사장 위촉



우원식 이사장

(사)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는 8월 24일, 대한민국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우원식 국회의원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이종찬 전임 이사장을 명예이사장으로 총회의 추천을 받아, 우 이사장이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종찬 전 이사장은 신임 이사장 추천사를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건립위원회 이사장과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등으로 원만한 업무수행이 어려워 부득이 사임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3선의원이며 민주당원내대표를 역임한 우원식 의원을 후임 이사장으로 추천했다. 우 의원은 상해임시정부 사법부장을 역임하고, 의열단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사건에 연루된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자로 홍범도 장군의 독립투쟁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최적임자라고 부연하여 설명했다.

이사장은 정관 제12조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여, 참석 회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우원식 이사장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이사로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과 정내하 미네날하우스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이사장이 임명하는 사무총장에는 서준오 수석보좌관을 임명했다.

한편 지금까지 사무처 업무를 담당했던 문준진 사무총장과

국장단은 모두 자문위원으로 추천하여 의결하였다.

우원식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홍범도 장군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지만, 그 동안 역사적 평가가 인색했다”며 “홍범도 장군과 같은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두지 않고 그분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업적을 계승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종찬 명예이사장은 이임인사를 통하여 “그 동안 노고가 많으신 임원들에게 각별히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성원으로 소외되었던 홍범도 장군이 명실상부하게 독립전쟁의 최고 영웅으로 부활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회원들과 더불어 우원식 이사장을 중심으로 홍범도 장군의 위업을 현창하는데 힘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종걸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하여 “홍범도 장군이 드디어 국회에 입성했다”고 전제하며, 이 이사장이 국회에서도 독립운동에 대하여 해야 할 일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이 자리에는 카자흐스탄 고려신문 사장을 역임한 최영근 선생,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곽승지 교수와 홍범도장군 연구에 공로가 많은 반병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심현용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기념사업회에서는 오는 10월 12일 국회의원회관 강당에서 홍범도장군 탄생1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기념우표를 발행한다.

〈이사장 취임사〉

## “이사장직을 맡기로 결정한 것은 독립운동가들이 더 이상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져서는 안 되겠다는 강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원식  
(기념사업회 이사장)

2005년 흥남도장군기념사업회의를 발족할 때부터 지금까지, 흥남도 장군이 세상에 알려지고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신 이종찬 이사장님과 기념사업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일독립운동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독립운동사의 큰 거목이신 흥남도 장군의 위업을 계승하는

사업을 책임지게 되어, 영광스럽고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흥남도 장군은 일본군에게 ‘날은 흥남도’, ‘백두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들 정도로 무적의 용맹을 떨쳤고, 독립군으로서 가장 치열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벌였던 우리 민족의 영웅이었지만,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937년 소련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여 대중적 관심에서 멀어졌고, 일제감정기 독립군 최대 전투였던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의 승리를 이끌었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이념적 덧칠에 따라 그 업적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이사장직을 맡기로 결정한 것은 독립운동가들이 더 이상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져서는 안 되겠다는 강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외조부는 임시정부 사법부장관과 법무부 비서실장을 지내시고, 의열단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셨던 김한 선생입니다.

흥남도 장군과 마찬가지로 항일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싸웠고 1930년대 소련으로 건너가 항일운동을 벌였지만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에 저항하다가 일제 밀정으로 몰려 처형되었습니다.

광복70년을 훌쩍 넘긴 지금도 김한 선생, 흥남도 장군

과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유해가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역만리에서 쓸쓸히 잠들어있는 현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수천, 수만의 독립투사와 충의열사들이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한독립운동사의 실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대한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현대사에 기록되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의 위대했던 삶을 기리는 것은 이제는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으면 뿌리를 잃는 것입니다. 흥남도 장군과 같은 독립운동가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업적을 기리고 계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년은 흥남도장군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오는 10월 12일 탄생 기념식은 국회에서 의미 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흥남도 장군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와 역사를 보존하는 작업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사는 흘러가는 과거나 옛날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며, 그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라의 이름을 지키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흥남도 장군께서 대한독립군을 창건하고 연해주를 출발하며 1919년 12월에 발표했던 〈대한독립군 유고문〉 중 일부를 낭독하며, 취임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당한 독립군으로 신(身)을 탄연포우(彈煙砲雨) 중에 투하야 반만년 역사를 광영케 하며, 국토를 회복하야 자손만대에 행복을 여(興)함이 아(我) 독립군의 목적이요, 또한 민족을 위하는 본의라.”

<전임이사장 이임사>

## 기념사업회의 노고로 홍범도 장군, 독립전쟁의 최고 영웅으로 부활



이종찬 명예이사장

우리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가 2005년에 창립할 때부터 이사장을 맡아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으로 지금까지 무난하게 운영하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임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사업과 3·1운동, 임시정부 수립100주년 기념행사로 분주하

여 더 이상 기념사업을 이끌고 갈 형편이 아니고, 또한 기념사업회의 발전과 도약을 위하여 새로운 리더십이 요망되는 상황에서 후임문제로 고심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우원식 의원님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우 의원님은 시민운동을 하신 분이고, 역사의식이 투철한 분이십니다. 특히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십니다. 우 의원님의 외조부이신 김한(金翰) 선생님은 1919년 상해임시정부 사법부장을 역임하셨고, 그 후 김상옥 의사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사건으로 검거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1927년 출옥했습니다. 연해주로 망명하여 1936년 일본의 밀정이라는 혐의로 사형 당했습니다. 다행히 러시아에서 “스탈린 시대 정치탄압 지도급 인사”로 판명되어, 우리 정부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한 분입니다. 연해주에서 활동하시면서 홍범도 장군과도 교분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시라 누구보다도 홍범도 장군의 기념사업은 물론 독립운동 전반에 걸친 든든한 후원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념사업회가 창립될 당시만 하더라도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에서 소외된 상태로 대중적으로 잊혀져가고 있었습니다. 광복이후 남북 분반과 6·25전쟁으로 남북이 극단적으로 대립된 상황에서, 홍 장군은 공산주의자로 오해받아 학교교육과정에서도 빛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 공산권 몰락 이후 러시아와 중국과의 국교수립으로 무장투쟁의 본거지인 만주와 연해주 지방을 자유롭게 왕래하게 되자,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관련단체에서 자유왕래하면서 무장투쟁을 연구하여 홍범

도 장군의 항일투쟁 위업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항일독립전쟁의 최고 영웅이십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 이후 의병투쟁에 투신했고, 1907년에는 일제의 총포화약류단속법에 반대하여 산포수들과 더불어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후치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섬멸하는 등 함경도 일대에서 의병활동을 전개, “백두산 호랑이”, 축지법을 써 신출귀몰한 “날은 홍범도 장군”으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연해주에서 대한독립군을 조직하여 1920년에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독립군 연합부대를 지휘하여 일군 정규군과 싸워 최초의 승전을 건움으로써 모든 국민들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지난 주 홍범도 장군을 연구하시는 반병률 교수가 1922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극동민족대회 동영상을 입수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상영하면서 당시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시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홍범도기념사업을 맡아 추진하면서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문제를 성사시키지 못하여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내로 봉환하여 국립묘지에 이장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장군의 위상을 고려하여 무장독립투쟁을 기리는 독립된 공원을 조성하여 모셔야, 장군에 대한 정당한 예우가 된다고 생각하여 지연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신임 이사장님과 더불어 독립전쟁의 대표적인 무장으로서 위상에 상응하는 봉환작업을 하시기 기대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아직도 시민사회에서 소외한 실정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 해군의 최첨단 잠수함을 홍범도함으로 명명하고, 금년 3월에는 육군사관학교에서 독립전쟁의 영웅으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건립하는 등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장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니, 앞으로 신임 이사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기념사업을 벌여 모든 국민들이 장군의 독립운동 위업을 기리고 계승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노고와 성원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기념사업회 소식>

## 홍범도 장군 탄생150주년 기념식 개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는 장군의 탄생150주년을 맞아 10월 12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홍범도 장군은 1868년 음력 8월 27일에 탄생하여, 양력으로 환산 10월 12일에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작년 12월 임원회의에서 결정했었다.

이날 행사는 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이 주관하여 남양홍씨남양군파대총회(회장 홍성종)와 공동으로 주최하

며, 국가보훈처와 광복회, 재향군인회에서 후원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식전행사로 홍범도 장군의 생애와 독립운동에 대한 영상자료를 상영하고 본 행사를 개최한다. 본 행사에서는 이사장의 기념사와 후원단체의 축사와 축하순으로 진행한다. 축가는 육군 군악대의 연주와 노원 구립합창단의 합창으로 “날으는 홍범도가”, “독립군가”을 부르고, 참석자 전원이 “희망의 노래로”를 합창할 예정이다.

## 서거75주기 추모행사 카자흐스탄에서 개최

기념사업회에서는 홍범도 장군 서거75주기를 맞아 순국일인 10월 25일 카자흐스탄에서 추모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념사업회 임원과 기자, 관련학자 등 22명이 10월 22일 출국하여 4박 6일 동안 카자흐스탄을 방문한다. 23일에는 국내항공편으로 장군의 묘역이 있는 크즐오르다로 이동하여 24일 묘지 참배행사를 갖고, 다시 알마티로 이동하여 25일 새로 이전한 고려극장에서 추모식을 개최한다. 추모식은 독립유공자후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카자흐스탄 대사관과 고려인협회에서 후원한다.

추모식이 끝난 후에는 저녁에 고려극장에서 홍범도 연극 “의병들”을 공연한다. 홍범도 연극은 대장춘 원작으로

1942년 장군께서 참관한 가운데 크즐오르다에 있던 고려극장에서 초연했으며, 지난 2013년 70주기 추모행사에서 기념사업회 주선으로 재연한 바 있다.

홍범도 연극은 민족의식이 희미해 진 현지 고려인 동포들에게, 민족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접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순회 공연할 예정이다.

한편 고려극장 연극팀은 기념사업회 초청으로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모국을 방문하여 2일에는 육군사관학교, 3일에는 의병도시 제천시에서 홍범도 연극을 공연할 예정이다.



<2013년 묘지 참배 행사>



<2013년 카자흐스탄 추모행사>

## 홍범도 장군 탄생150주년 기념우표 발행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장군의 탄생150주년을 맞아 장군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10월 12일자로 기념우표를 발행한다.

기념우표는 52만장을 발행하여 세계우편기구에 가입한 200개국에 송부하여 보급하며, 국내에서는 전국 우체국에서 발매한다고 한다.

우표의 도안은 1922년 모스크바에서 촬영한 권총을 찬 장군의 사진을 중심으로, 양 옆에는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 기념비가 있는 모양이다.

기념사업회에서는 기념우표 1만 매(625셀)를 구입하여

회원들과 관계 기관 및 독립운동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기념우표 도안>

<신임 임원 소개>

## 대한변리사회 회장이며, 독립운동가의 후손



오세중 이사

오세중 신임 이사는 대한변리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독립유공자 이계한 선생의 외손이다. 변리사회는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로 구성된 공인단체로 1946년 설립된 후 70년 넘게 회원들의 전문성을 함양하여 발명가와 기업 등 법률소비자의 권리보호,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과 발전, 그리고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

오 이사는 이사 선임 소감으로, 흥남도 장군 탄생150주년이라는 특별한 해에 이사로 선임되어 더욱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장군의 고귀한 삶과 애국정신을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마음에 새기고, 후세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우리 기념사업회가 흥남도 장군과 같이 일생을 바쳐 나라를 되찾고자 희생한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사를 온전히 정립하는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 이사는 1958년 생으로 만 59세이며,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제32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했다. 우원식 이사장과 함께 운동권 단체인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에서 활동했고, 민청련 “민주화의 길” 편집부장을 지냈다. 해오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지식재산발전연구회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재산권자문단 위원과 경희대학교 정보디스플레이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 오마이뉴스 창간 주주와 편집위원을 지낸 다양한 사회활동 경력



정내하 이사

정내하 신임 이사는 현재 (주)미네날하우스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YMCA 경기도 광주 대표위원장을 담당하여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네날하우스는 천연화장품 닥터딕을 국내외에 판매하는 기업으로, 정 이사는 해외담당 대표를 맡고 있다.

정 이사는 해외출장 관계로 지난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흥남도 장군은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무장투쟁의 선봉장이신데, 그 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게 되어 영광”이라는 소감을 밝히고, “흥남도 장군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강한 나라를 만드

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흥남도 장군은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한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것이며, 민족정신 함양에도 크게 기여하여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얼마 전에는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흥 장군이 말년에 어려운 생활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토로하고, 흥남도 장군의 민족정신을 교육하는데 기여하자고 제안했다.

정 이사는 1957년생 만 61세로, 오마이뉴스 창간 주주와 초대 편집위원을 지냈고, 오마이아카데미 대표, MBC 아카데미 뷰티스쿨 해외담당 부사장, 열린우리당 사회교육특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 경력을 가지고 계시다.

## 환경공학을 전공한 우원식 이사장 수석 보좌관



서준오 사무총장

서준오 사무총장은 우원식 이사장의 국회의원 수석보좌관을 맡고, 14년 전부터 이사장을 보좌하고 있다. 이번에 흥남도장군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고 밝히고, 이사장님을 보필하여 독립전쟁의 전설적인 영웅인 흥남도 장군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장군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으므로 기념사업회를 원만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임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데 열의를 다하고, 회원들 간에 유대와 친목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 총장은 1975년생으로 만 43세이며, 서울산업대학교(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총학생회 연대사업국장으로 활동했다.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했고, 1급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이다.

2004년 우원식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시작하여, 민주당 서울시당 조직부국장과 노원구청장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다시 국회로 복귀하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보좌관과 행정비서관을 지내고, 현재는 수석 보좌관을 맡고 있다.

## 《전쟁기념관》 8월호, 〈위대한 전쟁, 위대한 전술〉에 대한 의견 “아직도 흥범도 장군은 창산리 전투에서 소외되고 있다.”



손광춘 이사

1990년대까지만 해도 흥범도 장군은 철저한 반공주의 풍토와 일부 명예욕에 사로잡힌 이들의 역사왜곡으로 흥 장군의 무장독립투쟁 위업이 부각되지 못했다. 특히 청산리 전투는 김좌진 장군이 주도했다고 알려져 완전히 소외된 상태였다. 이런 현상은 1990년 공산권 몰락 후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후에 무장투쟁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독립운동 관련 단체에서 무장투쟁 현장인 중국의 만주지방과 러시아의 연해주 지방을 방문하여 꾸준히 연구한 결과 흥장군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거짓의 뿌리가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아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도 있다.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관에서 발행한 《전쟁기념관》 8월 호에 김무일 전 국방대학 교수가 기고한 〈위대한 전쟁, 위대한 전술〉의 청산리 전투설명에서 흥범도 장군은 실종된 것이다.

이 책 5페이지〈“독립전쟁에서 거둔 가장 빛나는 전과, 청산리 전투”에서 “북로군정서군 1,500명으로 편성된 제2제대(이범석 장군 지휘)와 비전투 요원으로 구성된 제1제대(김좌진 총사령관 겸임 지휘)가 청산리 백운평 계곡으로 진출하여 적을 기다렸다. 일본군 전위 사령을 선두로 기마대·보병·공병 1만의 혼성여단이 골짜기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아군은 적이 함정 속으로 들어 들어올 때까지 침묵을 지키다가, 이범석이 쏜 총이 전위 사령을 거꾸러뜨림과 동시에 공격을 개시, 3차로 적의 부대가 몰려들 때까지 적 200여 명을 사살한 대전과를 거두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독립기념관》 글에서는 청산리 전투의 두 번째 전투인 완루구 전투에서 흥범도 연합부대가 10월 21일 오후부터 22일 새벽에 걸쳐 일본군 동지대 부대 400여 명을 살상한 전투는 없다. 또 청산리 전투에서 가장 큰 전투인 어량촌 전투에서 김좌진 부대가 일본군의 우세한 병력과 막강한 화력으로 공격당하여 포위되어 위기에 봉착했을 때, 흥범도 장군이 일본군 측면을 맹공 하여 김좌진 장군을 구출했던 설명도 없다.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자료에서도 어량촌과 봉밀구 전투에서 일본 군대에 완강히 저항 한 주력부대는 흥

범도가 인솔한 독립군이라고 지적했다. 일제는 적장 흥범도 장군에 대하여 외경심을 보이고, 비록 “섬멸”의 대상이지만 호걸풍의 인품과 지략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청산리 전투에 대한 왜곡은 정부 수립 이후 국무총리를 지내고, 청산리 전투 당시 북로군정서군의 장교였던 이범석의 회고록 《우동불》에서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고, 흥범도 부대는 도망치다가 때죽음을 당한 것처럼 기술하면서, 왜곡된 내용이 정사처럼 인식되어 왔다.

이범석이 흥범도 장군을 깎아내린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우선 자신이 속한 김좌진을 돋보임으로써 자신의 전공을 빛나게 하고, 6·25전쟁으로 인한 반공의식이 작용하여 흥범도가 러시아의 공민권을 취득하고 공산당에 입당한 행적을 부각시켜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려고 한 것이다.

이범석의 저서와 그의 각종 증언의 영향을 받아 1983년 개정된 한국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한국독립사〉의 ‘청산리 대첩’편에 흥범도의 이름 석자도 나오지 않는다.

청산리 독립전쟁의 주역은 북로군정서가 아니라 흥범도 장군을 중심으로 한 〈독립군 연합부대〉라는 평가는 보편화된 사실이다. 흥범도 장군은 당시 52세로 5개 독립군 연합부대 사령관이고, 북로군정서 김좌진 장군은 31세, 이범석은 20세로 청산리 전투에 참전했었다.

사실상 우리 독립운동사는 아직도 미완의 장이다. 특히 무장독립투쟁사는 공산권 몰락 후 1990년대 연구자들이 무장투쟁의 본거지인 중국 만주지방과 러시아 연해주 지방을 자유왕래하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여,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에 대한 전개 과정과 구체적인 전황을 대부분 밝혀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도 청산리 전투의 주역이 김좌진, 이범석이라는 주장은 너무 구태의연하고,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더구나 독립운동의 업적을 현창하고 안보의식을 고취시켜야 할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관에서 왜곡된 글을 게재한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져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 기념사업회에서도 아직도 이렇게 왜곡된 잔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독립운동 연구 학자들과 독립운동단체들과 더불어 역사 찾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이다.

무장독립운동 장군열전 5

대한총군부사령관, 안중근과 강우규 의사(수류탄 2개)지원,  
이상설의 만국평화회의 참석 적극 지원했고,  
흥범도 장군과 함께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크게 활약한 최진동(崔振東) 장군



최진동장군

최진동장군은 1883년 함경북도 은성군(穩城郡)에서 부친 최우삼과 어머니 이(李)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장군의 본관은 진산(珍山)이고 이름은 최명록(崔明祿), 중국에 귀화입적 할 때에 최희(崔喜)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으며 1920년 봉오동 전투 직전부터 조선을 흥하게 한다는 의미로 진동(振東, 鎭東)이란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1904~1905년 장군은 러일전쟁 당시 이범윤 사포대에 많은 군자금을 제공해주었고 물심양면으로 그들의 항일투쟁을 지원하였으며 그가 오래전부터 훈련시킨 장정들은 이범윤의 사포대에 가입하여 러시아군과 연합하여 일본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1907년 6월 헤이그 만국평화회에 고종이 과견하는 밀사 이상설, 이준이 연변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최진동장군은 그들에게 여러 면에 도움을 주어 두 밀사가 무사히 러시아를 거쳐 헤이그에 도착하게 하였다.

1907년 8월 용정시에서 하루 목은 안중근의사는 연길등지를 거쳐 회막동에 와서 최진동장군과 만나 무력으로 일제와 싸우는 독립운동 방침을 의논하였다.

1912년 장군은 봉오동 중촌에 사립 봉오동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반일계몽사상을 교육하였다.

1919년 9월 강우규의사는 훈춘일대에 들러 최진동장군과 만나 반일구국의 방침을 의논하고 최진동장군한테서 수류탄 두개를 구해 어렵게 서울에 도착하였고 서울 남대문역에서 2천만 조선민족을 대표하여 사이토오 조선총독에게 폭탄을 던지는 의로운 행동을 실행하였다.

1919년 늦가을 최진동장군은 단동에 도착하여 의친왕 이강과 밀담을 나누었는데 이 자리에서 의친왕 이강은 최진동장군에게 무력으로 조선을 침략한 일제를 몰아내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려면 무력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이치는 3.1운동을 통해 얻어낸 결론이라고 강조하였다.

1920년 봄 최진동장군의 군무도독부 독립군은 흥범도의 대한독립군과 양하청 독립군부대와 연합하여 두만강을 넘어 조선함경북도 회령, 종성, 은성 등 일본군수비대를 공격목표로 연속적인 국내 진격전을 벌였다.

1920년 6월 최진동, 흥범도, 안무장군의 국민회군이 지휘하에 연합하여 일본군과의 첫 전투인 봉오동전투를 진행하였다. 흥범도장군과 최진동장군의 뛰어난 지휘로 독립군은

큰 승리를 하였다.

1920년 10월 청산리전투에서 최진동장군은 대한총군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대한총군부의 독립군을 인솔하여 동부전선에서 일본군과 싸웠다.

최진동장군이 인솔한 대한총군부 독립군사들은 동부전선에서 비록 분산적으로 전투를 전개하였지만 이런 전투들은 전반 경신년 반토벌전에서 일제의 <토벌> 계획을 교란하고 김좌진, 흥범도의 서부전선의 독립군부대를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1921년 4월 12일 러시아 국경에 있던 대소 36개 반일무장단체의 수뇌자들이 이만에 모여 대한의용군총사령부를 대한독립군단으로 개칭하고 지휘체제를 다시 확정하였으며 최진동장군은 외교부장으로 임명되었다.

1924년 9월 북만지구에서 반일투쟁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최진동장군은 직계군벌 오패부의 간첩으로 혐의를 받고 동녕현 중국경찰에 체포되어 길림 모범감옥으로 이송되었다가, 석방되었다.

1930년 2월 13일 생육사(生育社)는 길림현 춘동하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조선인이 경작 충당할수 있는 농지매수를 최고 목표로하여 비축조합을 구성하고 조선인의 친목, 수양, 식산을 목적으로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한다는 사항을 결의로 통과하였다.

1939년 최진동장군의 막내아들이 탄생하였다. 의친왕은 최진동장군 막내아들 이름을 최인국으로 작명한 족자와 독립운동과 국사에 관한 밀서를 이기권 밀사를 통하여 최진동장군에게 전달하고 의논하였다.

1941년 최진동장군은 3천 정보(1천만 평) 가량의 연길 대흥에 소재한 임야 및 비행장 확장에 따른 토지를 기부하라는 명령에 불복 대항하다가 일본헌병대에 끌려가 심한 고문을 당했다. 일본은 부인 최순희로부터 임야 및 땅을 강제 환수하고 최진동장군을 풀어주었다.

1941년 11월 25일 최진동장군은 일본헌병대로부터 풀려났으나 가택 감금당하여 받은 고문으로 병세가 악화되어 58세로 순국하였다.

그의 시신은 도문시 봉오동 토성리에 안치 되었다가 2006년 4월 11일 대한민국 대전국립현충원에 다시 안치되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상 우당 이회영 선생 6형제가 모두 독립운동에 헌신 한 것과 같이 최씨 3형제 진동, 운산(문무), 치흥도 무장항일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한 가문이다.

대한민국정부는 최진동장군의 공적을 기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정리: 흥성덕 부이사장)

## …임원동정…

### ○우원식 이사장



8월 5일부터 10일까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콜롬비아 이반 두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였다. 20대 국회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이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하며, 남북경제협력특위의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 ○이종찬 명예이사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위원장은 8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 학술회의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임시정부 수립100주년을 맞아 건립되는 기념관의 역사적 의미와 자료전시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했다. 한편 8월 25일에는 서울시 시민위원310 위원장으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3·1운동 100주년 시민위원 토론회를 주재했다.

### ○홍성덕 부이사장



21세기경영인클럽 고문은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제주중문단지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7회 경영인클럽제주포럼에 참석하여 발표모임을 진행했다. 이번포럼에서는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의 “문명사적 전환기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 축소불균형과 확대 불균형으로” 등 다양한 주제를 발표했다.

### ○김유진 고문



4·19혁명유공자회 상임이사는 9월 3일 용산에 있는 기와집 식당에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단체로 가칭 “기와집아카데미”를 설립할 발기모임을 가졌다. 여기에는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김동원 목사, 조지현 목사 등 원로목회자들이 참여하여 뜻을 모았다고 한다.

### ○이우재 고문



매천 윤봉길월진회 명예회장은 충청남도과 예산군의 후원으로 9월 4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윤봉길의사 탄생11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윤봉길 의사 창작 뮤지컬 “스물다섯, 매화로 피다” 공연을 주관했다. 윤봉길 뮤지컬은 작년 순국85주기를 기념하기 위하여 시연한 작품으로, 지역민들을 위하여 앵콜 공연을 한 것이다.

### ○홍헌일 감사



서서울향토문화연구원장은 서울문화사학회에서 주최하여, 7월 21일 오후 롯데시네마 8층에서 개최된 제77차 수요강좌에서 ‘조선시대 서울도성의 봉수체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기념사업회 임원 다수가 참여하여 경청했다.

### ○박형상 감사



박형상법률사무소 대표는 7월 27일 제11회 정남진 장흥물축제에 참석하여 개막 강연을 했다. 이번 축제는 임진왜란 때 명량해전의 출발지인 장흥의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했다.

한편 계간지인 ‘해외동포 저널’ 2018년 여름 호에 화순 운주사를 소개하는 글을 기고했다.

### ○김경호 이사



대구시 자문대사는 7월 12일 영남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크로드의 중심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특강을 했다. 8월 27일에는 한국 주재 중앙아시아 외교단 행사에 참석하여, 11월에 대구시 주최로 개최되는 국제의료학술대회에 참가하도록 설명회를 가졌다.

### ○이미자 이사



전 종로구의원은 8월 24일 종로구 송인동 동망산공원 백일홍 축제에 참석하여 주민들을 격려했다. 동망산 백일홍은 이 이사가 구의원으로 있으면서 3천만원의 예산을 주선하여 61그루의 백일홍을 심고 단장했다. 지금은 꽃이 만개하여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원이 되었다.

### ○이영철 이사



도봉문화원장은 서울시와 도봉구의 후원으로 10월 9일 도봉문화회관에서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을 맞아 “정의공주와 함께하는 제7회 도봉 한글잔치” 기념식을 개최한다. 한글잔치에서는 기념식과 축하공연, 창작뮤지컬 “정의공주” 공연,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정의공주는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둘째 공주로 한글창제에 크게 기여했고, 묘가 도봉구에 있다.

### ○홍성종 이사



남양홍씨남양군파대종중회 회장은 9월 4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남양회보 집필위원 간담회를 주관했다. 9월 2일에는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에 있는 600년 내려온 선산에서 참배행사를 주관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별초했다.

### ○홍이표 이사



“애국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소비자 모임”(애지모) 회장은 8월 4일 올림픽공원에서 환경지킴이 기자단과 교육지도자 35명이 참석하여 환경정화활동을 벌이고 한성 백제박물관을 관람했다.

8월 21일에는 회원 30여명과 같이 프레스 센터에서 개최된 임시정부기념관 건립관련 학술회의에 참석했다.